

# “내가 떠나더라도 청정수행 매진해라”

## 법정스님 유언장 공개

지난 11일 임직한 서울 김상사 전 회주 법정스님이 스승으로서 상좌 스님들에게 화합하며 청정수행에 매진 하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법정스님의 유언장 집행인 김금선 변호사는 지난 17일 김상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정스님이 지난 2월24일 작성한 유언장을 공개했다.

법정스님은 ‘상좌들 보아라’는 제목의 유언장에서 “모두들 스스로 깨닫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거들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미안한 마음 그지없다”면서 “내가 떠나더라도 마음 속에 있는 스승을 따라 청정수행에 매진하여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드러내기 바란다”며 수행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덕조는 만상좌로서 결계 중에는 제방선원에서, 해계 중에는 불일암에서 10년간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한 뒤 사제들로부터 만상형으로 존중을 받으면서 사제들을 잘 이끌어주기 바

란다”고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이어 “덕인 덕문 덕현 덕운 덕진과 덕일은 덕조가 만상형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수행을 마칠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신의와 예의로 서로 존중하고 합심하여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이루고 수행하기 바란다”며 신의와 예의, 합심으로써 도량을 이루고

## “책 출간 말라” 유지 받들어 ‘절판’ 결정

수행하라는 가르침을 전했다. 이와 함께 법정스님은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유언장을 통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에 주어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

다. 이어 “그동안 풀어놓은 말빛을 다 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어려서는 탓으로 제가지지른 허물은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겠다”고 덧붙였다.

맑고향기롭게는 지난 17일 긴급 이사회를 연 뒤 “법정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절판결정을 내렸다”면서 “스님의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맑고향기롭게는 “법정스님 열반을 전후해 스님의 책이 풀절되는 사태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스님의 유지를 존중해, 모든 출판사에 더 이상 스님의 출판물을 출간하지 말 것을 정중히, 간절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스님의 글을 읽고 싶어하는 독자들을 위해 누구든, 언제든 스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지난 17일 서울 김상사에서 김금선 변호사가 법정스님의 유언장 내용을 밝히고 있다.

## 4월1~2일 한-태 불교문화포럼

올해 10월 태국에서 열리는 ‘방콕-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0’을 앞두고 한국과 태국의 불교문화 교류 행사가 열린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오는 4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한-태불교문화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태 불교문화대전’의 첫 행사인 문화포럼은 의식행사와 학술행사, 불교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

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동국대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문화포럼 위탁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손동진 총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의 불교문화 관련 기관이 지속적으로 교류해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불교문화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 한-일-대만 참여불교워크숍

국제참여불교연대(INEB) 동아시아 일본위원회가 주최하는 ‘참여불교 국제워크숍’은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일본 도쿄, 요코하마 일대에서 진행되며,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불교와 교단의 미래, 미래 사회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

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일본 측은 동성애, 낙태 등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참가자들은 그동안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전개해 온 사업과 활동 등을 주제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엄태규 기자

## 태허스님 41주기 4월12일 국립현충원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가 오는 4월12일 오전11시 서울 국립현충원 임시정부요인 묘역에서 태허스님 서거 41주기 추모제를 봉행한다.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했던 태허스님의 사상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추모제는 불자 15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민성진 회장은 “조국과 민족의 빛과 희망이 되어 투쟁하시다 우리 곁을 떠나가신 운암 김성숙 선생의 뜻을 다시 새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추모제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 취재현장 뒷 이야기

‘영남알프스 문화탐방에 동참하세요’라는 홍보에 “영남알프스가 펜션입니까? 스키장입니까?”라고 문의를 하듯이 영남알프스에 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영남알프스란 영남의 동남내륙에 동서로 울산과 경남이, 북에는 경북이 감싸고 있는 해발 1000m 이상 고봉 7개를 거느린 거대한 산 준령을 말한다. 1960~70년대 산악인들이 산이 아름답다 하여 ‘영남알프스’라 불렀다 한다.

인근 울산·경남·경북 그리고 부산 주민들에게도 펜션이 많이 들어선 배내골과 사곡 ‘허준’에서 나온

## 성보문화의 브랜드 살려야

얼음골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영남알프스에는 잘 알려진 국지대할 통도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밀양 표충사에는 호국애민의 사명성사 유물관과 승병 훈련장이었던 기병소 터 등 지금의 사자평인 역사의 현장이 있고, 그 제약산 요소요소에는 한계암 적조암 진불암 등 산내 암자들이 기암괴석과 폭포에 걸쳐있다. 울산 신흥사에는 국내유일의 국보급 문화재인 관음삼존 벽화와 대광전이 있고, 석남사에는 보물 369호 도의국사 부도가 있다.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편찬한 운문사 등 천년고찰과 성보문화재가 즐비할 뿐만 아니라 불조의 혜명을 이어온 선지식들의 정신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란 사실을 아는 이는 적다. 이러한 천년고찰을 두고 걸모습을 보고 즐기는 이는 많지 않지만, 막상 내면의 정신과 문화를 살려 체험하는 탐방에 동참하고 나서 영남알프스의 진면목을 알고 감탄해한다. 산악인들이 영남알프스라 불렀다면 우리 불자들은 성보문화의 브랜드를 살려 ‘불지성산(佛之聖山)’임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정병은 경남동부·울산시장 minusan@ibulgyo.com



## 아이티 돕기 이색 출판기념회 “지구촌 고통 나누는 지혜 갖자”

### 원로의원 진제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이 세계를 향한 자비행을 실천해 ‘세계일화’의 표상으로서 승가와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조계종 원로의원 진제스님은 지난 16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아이티·칠레 난민 돕기 출판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진제스님이 법어집인 <석인은 불을 낳고 폭내는 꽃을 따네>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진제스님은 최근 대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티와 칠레 국민들을 위로해 ‘하회중생’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장으로 변모시켰다.

진제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지구촌과 인류는 문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지구촌 가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이 행사를 통해 아이티와 칠레 지진 참사지역의 난민들과 국내 불우이웃을 돕는데 마음을 일으키니 모든 분들의 진심어린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로의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은 축사에서 “진제스님은 대인이 되고자 하거든 마음에 취하고 버림이 없어야 한다는 심무취사(心無取捨)의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고 있다”며 “모두가 환희심으로 스님의 불사에 동참한다면 무량한 복이 되기도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모인 기금은 국내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칠레 대사관을 통해 난민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 진제스님은 지난 1월20일 아이티 긴급구호기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이미 기증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진제스님의 자비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계종 원로의회 수석부의장 지혜스님과 차석 부의장 밀운스님, 원로의원 혜정스님, 고우스님 등 원로대덕스님과 함께,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허운스님, 설동근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손동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최병문 부산지사장 ch4717@ibulgyo.com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시몽스님(사진 오른쪽)이 지난 17일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에게 아이티 구호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 백양사, 아이티 구호에 1000만원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시몽스님이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경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아이티 구호 기금으로 1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이날 백양사가 전달한 기금은 18교구 본·말사에서 모금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백양사 기금 전달로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총 10억7508만623원으로 집계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금을 전달해줘 고맙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몽스님은 “다른 사찰에 비해 기금 전달이 너무 늦게 이뤄진 것 같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 사

서실장 경우스님, 기획국장 만당스님이 배석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 신흥사, 본말사 통합법회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우송스님)는 지난 15일 경내 설법전에서 ‘신행단체 통합법회’를 개최했다. 양주 육지장사 회주 지원스님을 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는 신흥사 본말사 신도와 신행단체 회원인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지원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씩없이 수행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 부지않고 생으로 만든 생들깨기름

국내산 100%!

자연의 품미가 그대로 담긴 들깨의 맛! 산화방지제 및 첨가물이 없는 100%원액기름입니다.

색상을 비교해보세요!

부지않고 생으로 만든 생들깨기름 만이 고유의 황금색을 띠니다. 두바이오 생들깨기름은 아메리칸 황금 빛을 띠니다. 100%국내산 들깨만을 사용해 인착하여 썬 순수한 들깨기름의 원액입니다.

백은 들깨기름은 갈색을 띠며 볶는 과정에서 유해물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붉은 들깨기름은 갈색을 띠며 볶는 과정에서 유해물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산화방지제 및 첨가물이 없는 100% 원액 생들깨기름!
- 국내유일 생기름 제조법 특허!
- 오메가3 60%함유!
- KBS 생로병사의 비밀 방영!
- 해외 각국 수출!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총동문회

대학생 대표 학교의 희망

대불련 후원회

018-606-1250(이권수)  
006001-04-225718(국민은행)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230-4  
주문전화 서울 018-606-1250(이권수), 대구 (053)255-7444(이행섭)